

Breathing Ruins : Still Wrestling	
참여 작가	이동혁 (Donghyuk Lee), 우수빈 (Subin Woo)
전시 기간	2026 년 8 월 27 일 – 2026 년 10 월 2 일 (오프닝 리셉션 : 8 월 27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핼 (FIM)

전시 내용

핼은 2026 년 8 월 27 일부터 10 월 2 일까지 2 인전 《Breathing Ruins: Still Wrestling》을 선보입니다. 국내 작가 이동혁(b.1985)과 우수빈(b.1999)이 참여하며, 회화와 조각, 설치 작품 20 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폐허를 지나온 이후의 풍경으로 다루는 대신 지금도 질문과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장소이자 개념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 무엇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전시 서문

신념이 스러진 채 흔적만 남은 자리, 삶과 죽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동혁과 우수빈에게 '폐허'는 작업을 추동하는 조건이지만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은 아니다. 폐허는 이동혁에게 실패와 질문이 거듭되는 자리이며, 우수빈에게는 숨겨온 감정과 욕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한 자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허는 완결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생성되고 관계를 맺는 현재진행형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동혁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가는 사람에 가깝다. 믿음은 작가에게 지켜야 할 대상도, 버려야 할 대상도 아니다. 다만 회화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질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한때 신앙과 신념이 깃들었으나 지금은 버려진 폐교회를 찾아 그 풍경과 물성을 화면에 옮겨온 연작과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끈질김, 절대적 신적 존재와도 씨름하듯 물고 늘어지며 끝내 놓지 않는 태도를 담은 연작을 선보인다.

이동혁의 작업에서 개념과 도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회화'라는 매체와 이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이다. 이동혁에게 작업은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회화는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응답이며, 그렇게 그려진 형상은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온다. 작가가 같은 형상을 반복해 그리고 다시 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동혁이 회화를 통해 질문을 이어간다면, 우수빈은 조각과 설치,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방식을 모색한다. 언뜻 보기에 우수빈의 작업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의 최근 작업은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태도에서 출발한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으려는 감정 또한 함께 놓여 있다. 작가는 삶과 죽음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도, 반대로 지나치게 간접적으로도 다루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작업이 너무 쉽고 거칠게 분류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감정을 통과해 작업을 만든다. 죽은 새와 말의 형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업에서부터 여러 매체가 서로 기대고 버티며 균형을 이루는 추상적 조각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은 감정을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환원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존재와 감정은 충돌하고 기대가며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두 작가는 사라진 것과의 관계를 끊기보다, 그것과 계속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나간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폐허를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앞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관계를 끝내 종결하지 않는 일에 주목한다. 이동혁은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우수빈은 감정을 끝내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각자의 작업을 이어간다. 서로 다른 매체와 태도에서 출발하지만 두 작가의 작업은 결국 무언가와와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행위로 수렴된다.

폐허는 이들에게 이미 끝난 과거의 장소가 아니다. 이동혁과 우수빈은 작업을 통해 폐허를 살아 있는 관계의 장소로 다시 열어 보인다. 그 안에서 질문은 숨을 쉬고, 감정은 형태를 얻으며, 두 작가의 씨름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진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

작가 소개

이동혁 (b.1985)은 회화를 통해 신념과 기억, 이미지에 내재한 질문들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의 답에 이르기보다 질문이 다시 질문을 낳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의 회화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결론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오래 관계 맺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동대학원 회화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기체 (2024), 에이라운지 (2022, 202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디스위켄드룸,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하이트컬렉션 (2025), 이아 (2024)에서 열린 단체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2026)에 참여하고 있다.

우수빈 (b.1999)은 조각과 설치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 욕망과 감정을 물질의 형태로 엮어내며, 숨겨온 감정과 존재의 흔적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을 이어간다. 그의 작업은 감정의 재현을 넘어 여러 존재와 감정이 기대어 머물 수 있는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소현문 (2026)과 안팎 (2023)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아트스페이스 틈, 소현문 (2025), 우석갤러리 (2024)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 천만아트포영 최고상인 천(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대표작 이미지



이동혁, *약궤_3*, 2026, oil on canvas, 100 x 180 cm
이미지제공 **FIM**



이동혁, *야곱_1*, 2026, oil on canvas, 180 x 100 cm

이미지제공 **FIM**



우수빈, *당신의 첫번째 말*, 2024, Clay, plaster bandage, and dry media on a steel armature, 70 x 193 x 157 cm
이미지제공 FIM



우수빈, *Orange Stems of Winter Jungle*, 2023, Mixed media on plaster panel, 35 x 45 cm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이미지



